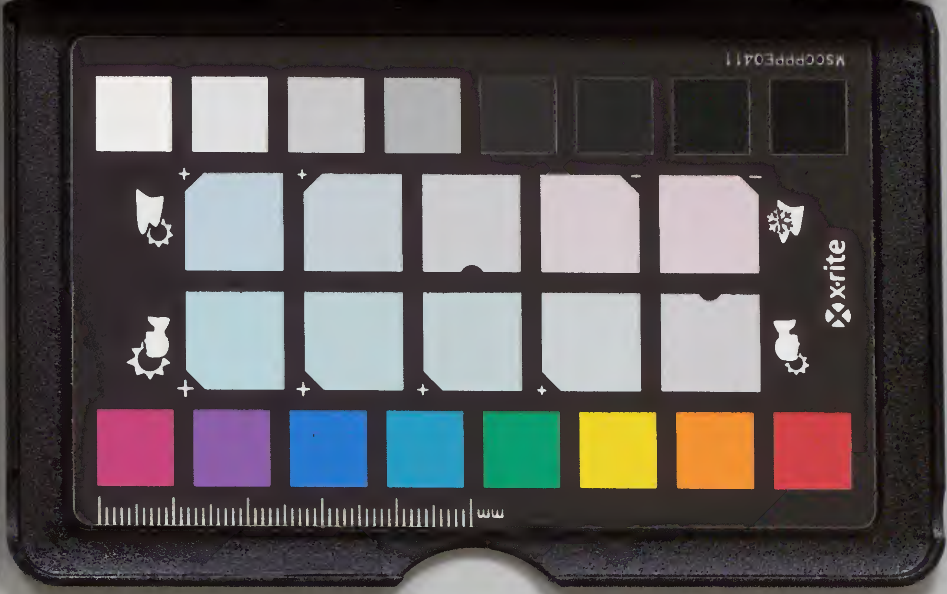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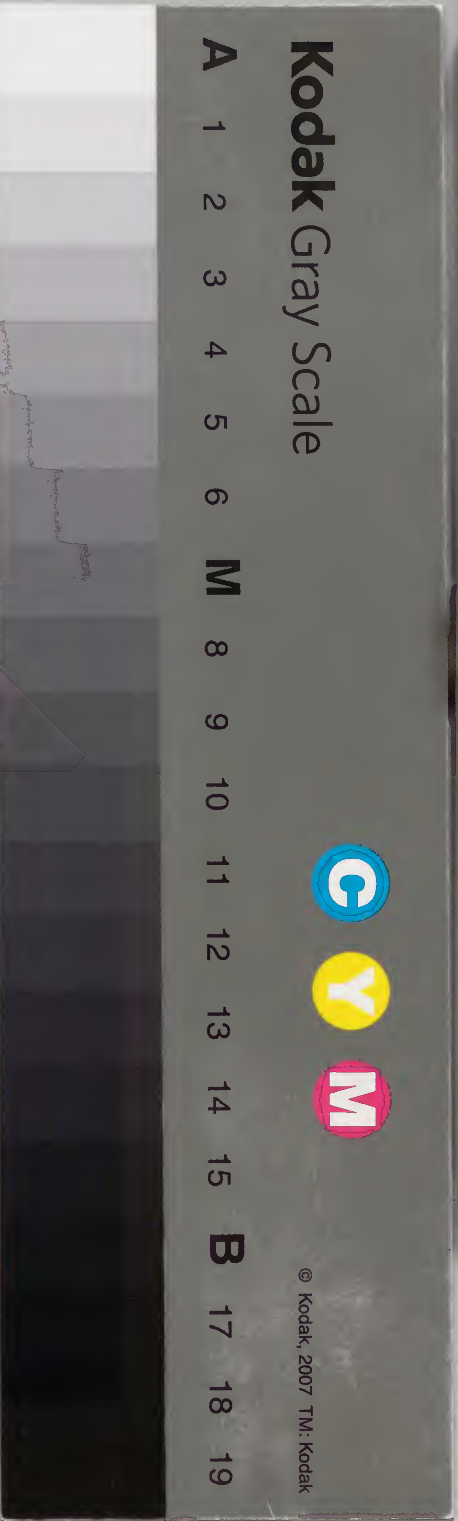


庫文閣内		
三	二	漢
九	目	書
函	一	
四	三	
衆	冊	類

内閣文庫		
番號	漢	2413
冊數	1(1)	
函號	297	50

297-50



重刊警民編序

思齋金先生閔愚氓之陷於罪而不自知也

作警言民編一帙訓人倫之端戒不率之罰使

之知為善知免罪其忠厚之氣藹然薰人可

謂仁者之澤其流無窮矣慶尚一道古新羅

國也號稱淳厚須以安東降號常用慨然今

來此道吏抱囚案以進則慶州獄囚悖倫當

死者數輩其他兄弟之變骨肉之訟紛然不

已噫何為而至於此也余意俗之流失固非

一日人心本善豈不可以感動之茲以此編

添補君上一條付之四長官
慶州尚州 晉州 青松州 丞上

於梓印頌屬邑屬邑各來印出兼許民間私
印期於家家有之人人見之各有以興起而
戒勅也凡此一道之人盡相與勉之萬曆已
卯觀察使陽川許曄序

警民編

君上第一

君為民之主是時國是民所依羅兄百姓之
所以相生相養也為無強弱爭奪之憂者隱皆
國家養育之恩也羅是故奴為百姓者是愛
戴君上乙當如父母五奉承君上乙當如子
息尼平時貢賦徭役乙必誠必信也為無或怠
緩是民之職分也羅國家如有不時舉動也為
或倭寇是來侵於此狄是強梁則盡心極力
以禦之為不可少有窺避之心五或天使之
來則國喪之出則恪謹奔走以供之也為不可

少者怨恨之念 厄若有不敬不恭則隨其大
小 也為蒙罪必矣 羅可不畏哉 旣可不慎哉 阿

님금은비성의님재도엇고나라호이빅
성의의지후인노배니물윗빅성의버서
르사루며서르거느리쳐강후니여약후
니두도와안노근심이업소밭자노다국
가의거느리쳐길어내시노은혜라이런
고로빅성도연노채님금이며웃사름수
랑후야이엇기롤반두시어버이그티후
머님금이며웃사름올받즈와위뒤후기
를반두시즈식그티후야평시에공물이

여구실뒤답기롤반두시청성도이후며
반두시민비후야후도게을러늦드
마로미빅성의후올대예이리라나라히
만일예블시예거동이이셔후예눔이와침
노후거나오랑캐글왜거나호즉무솜과
힘을다버후야막즈라가히쵸고애도여
어봐피흔무솜을두디말며후턴시오거
나국상이나거도공경후며삼가뎡검녀
버바터가히쵸고매도슬후여설위후노
럼을두디말라만일에공경티아니후거
나공쇼티아니후면그크며져그물조차

셔 죄 남 게 반 뜻 후 리 니 가 히 저 프 디 아 니
후 며 가 히 삼 가 디 아 니 흘 것 가

父母第二

父如天古為時五母如地羅劬勞生我古為時辛勤乳

哺古為時艱難養育尼為時父母父母矣恩德隱昊天

罔極羅祖父母隱生我父母尼為時與父母奴

無異羅是故奴善事父母也為時孝順無違面為

鄉里稱善彌為國有褒賞尼為飛法在祖父母父

母乙謀殺則陵遲處死古為歐打則斬古為詈罵

則紋古為不聽教令彌為不謹奉養則皆杖一百

是父母乙告訴面為其罪至重羅為尼守信繼母

是與親母同羅為尼

아 비 노 하 논 큰 고 어 미 노 사 큰 토 디 라 슈

고 로 이 나 룬 나 후 시 고 브 즈 러 니 져 머 기

시 고 가 난 히 처 기 르 시 니 부 모 의 은 혜 와

더 근 하 논 큰 티 그 지 업 스 니 라 하 나 비 와

할 미 노 내 아 바 어 미 룬 나 후 시 니 부 모 와

로 다 루 디 아 니 후 니 라 이 러 호 모 로 아 비

어 미 를 잘 섬 겨 효 도 후 며 순 히 후 아 어 글

웃 치 말 면 고 을 히 며 무 올 들 히 어 디 마 일

크 루 며 나 라 토 어 디 다 후 야 상 이 인 누 니

법 에 하 나 비 와 이 버 이 룬 쇠 후 야 주 기 면

능디 후야 주기고티면목버히고저지스
면목졸아주기고₂루치시논이롤듣디
아니 후며 효양 후기롤삼가디아니면다
당일비기오부모를할면그죄지그기똥
후니라슈신후야인논다슴어미친호어
미와로호가지니라

夫妻第三

夫妻結緣也為百年同居尼為飛夫須念妻旆為妻
須順夫也為雖有不協是夫益忍怒旆為妻益致
順沙為也家道不敗尼為里那是故奴夫妻和樂面為
永保厥家古為乖戾不和面為終致禍亂尼為是法

在妻是謀殺其夫則陵遲處死五歐打則杖

一百五重傷則絞五致死則斬五背夫則杖

一百五因而改嫁則絞五夫之祖父母父母

乙歐打則斬五詈罵則絞五告訴則杖一百

徒後五夫之族親尊長乙歐打旆為詈罵豆為也

其罪至重旆為他夫潛奸則杖九十五背夫改

嫁則絞羅夫是歐打其妻致死則絞五重傷

則亦皆者罪羅尼妻父母乙歐打則杖一百

五折傷則加等古為篤疾則絞羅

남진겨지비털연후야뵈년논호뒤사누
니남진도모로애겨지블스럼후며겨집

도모로매 남진의 게순후야 비록 화동티
아니호미이시나 남진도 더욱노를초므
며겨집도 더욱순후요물닐위에아지비
되페티아니후티니이러호모로남진겨
지비화후며즐겨오면기리그짐을안부후
고거순저화티아니후면내종애죄화며
난을닐위누나법애겨지비그남진놀새
후야주지면능디후야주기고티면당일
비기오동히상후면목줄아주기고죽게
후면목버히고남진놀비반후면당일비
기오인후야셔다로남진어루면목줄아

주기고남지니하나비와여버이롤티면
목버히고셔지즈면목줄아주기고할면
당일빅도년보내고남지니아옴과존호
얼우놀티며셔지저도그죄지그기등후
며다로남지놀그마니어루면당구시비
오남지놀비반후고다로남지놀어루면
목줄아주기라남지니그겨지블터죽게
후면목줄아주기고등히상후면또다죄
인누니라겨지빅어버이롤티면당일비
기오것겨더상후면죄를더주고병인니
도의게후면목줄아주기누니라

兄弟姊妹第四

兄弟姊妹卧第四同出於父母也為同氣
 而異體羅骨肉至親是無如兄弟乙於每知之飛為
 人是爭小利害也為鬪爭不和也為遂為仇讎飛為
 尼與禽獸奴奚擇理五兄須愛弟為弟必敬兄必敬兄
 也為每相疾怨怒為數口奴婢是有時而逃亡病也
 死為每益於尼兄弟姊妹是相殘不和為面鄉里皆皆
 每益於尼兄弟姊妹是相殘不和為面鄉里皆皆
 斥為國有常法羅終致敗家尼為飛法在據執執
 合執則杖一百徒後五不和則杖八十五弟
 卧妹西羅兄果姊乙詈罵則杖一百五歐打則

杖九十徒後五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五

廢疾則絞五告訴則杖一百羅

형과 아오 과문누의 피아오 누의 노날과
 로 부모의 게호가 지로 나귀우노호가 지
 로 뒤모모다로 디라 골육의 지그기친호
 미형데그 두니 업거늘 무디 호사 루미 조
 고만니 해 룬 돈 토와 사화셔 화동티 아 니
 호 아 쇠와 원 슈 룬 삼 누니 짐 송과 로 엇 디
 큰 히 리 오 형이 모로 매 아 올 스 랑 호 여 아
 이 반 두 시 형을 공 경 호 여 서 루 미 여 원 티
 말 라 두 어 귀 노 비 잇 다 감 도 앙 호 며 병 호

야 주 그 며 두 어 아 람 던 디 잇 다 감 천 번 개
 락 후 야 내 종 애 더 을 이 리 업 거 니 와 형 과
 아 오 과 몬 누 의 과 아 오 누 의 과 서 루 잔 해
 후 야 화 동 리 몬 후 면 고 을 히 며 무 온 히 다
 비 척 후 며 나 라 히 도 던 던 호 버 비 인 노 디
 라 무 추 매 지 비 패 케 되 누 니 법 에 아 사 가
 지 며 모 도 가 지 면 당 일 빅 도 녀 니 오 화 동
 티 아 니 후 면 당 팔 사 비 오 아 오 과 아 오 누
 의 라 셔 형 과 몬 누 의 를 쓰 지 즈 면 당 일 비
 기 오 리 면 당 구 십 도 녀 니 오 등 히 상 후 면
 양 일 빅 전 가 입 게 오 병 인 퇴 에 후 면 목 즐

아 주 기 고 할 면 당 일 비 기 라

族親第五

三寸叔父母隱與我父母奴同出於一人時為
 尼父母如等古為三寸姪及女隱皆我同氣之
 所出羅與君親子女奴無間羅為尼自四寸至
 七八寸屎雖有親疎遠近之異那為皆是一人
 之子孫羅比如木炬隱同根而異枝古為比如
 水炬隱同源而異派羅須愛敬尊長為梅恤
 卑幼也為母相關爭羅為法在三十寸叔父母
 罵則杖一百全家入居五篤疾則絞五徒役五傷則
 杖一百全家入居五篤疾則絞五徒役五傷則陵

遲處死五告訴則杖一百羅其餘族親是互
相歐鬪不穆為親疎分揀也差等治眾代等
者隱減等為卑幼隱加等尼為羅

삼촌아자비아주미노내부모과호가지
로호사루위게나니부모여등호고삼촌
아촌아들아촌사르다내호괴우늑난거
시라내의친호아들과살과로간겨기업
스나라소오초노로브터칠팔촌니르히
비룩친호며소호며멀며갓가오미달오
미이시나다이호사루미조소나라남괴
비권대호호불휘예가지탈음존고물예

비권댄근원이호가지오할애다롬르토
디라모로매존호얼우놀소랑호고공경
호며노가오며저므니를어엇비너겨시
르사화돈토디말라법에삼촌아자비아
즈미롤사지즈면당일씩이오티면당일
씩도녀니오상게호면당일씩전가입게
오병인도의게호면목줄아주기고부러
주기면능디호야주기고할면당일씩기
리그나문아옴이서르티머사화셔블화
호면친소를분간호야차등호야죄를주
디존호사루문감등호고저문사르모더

주느니라

鄰里第六

鄰里隱與我奴同住一處也為有無相資旆為患
 難相救也為義同親戚尼為母侵暴殘弱旆為母陵
 辱尊老也為文相委曲也為務為和穆羅為鄰里不
 和為患難不相救旆為死亡不相扶也為相為仇
 隙也為終致不測尼為正法在豪強之人是侵損
 於民面為全家入居五卑賤之人是陵犯尊屬
 豆為也亦皆有罪羅為尼

이우조나와로호고대호가지로사라이
셔이시야업슨거슬서루겨로이호여활라

의서루구호야대의권당과로호가지니
 잔약호니를보채디말며존호늘그니를
 무더니너겨욕디마라서루위무호야화
 목호기를힘써호라이우지블화호면환
 라니서루구호디아니호며죽배요매저
 루부조아니호야서루원슈호야협그기
 도야무초매혜아리디몬홀이름닐위누
 니범에호강호사루미빅성의게침해호
 면전가입게오누갑고천호사루미존호
 사루몬무더니너겨도또호다죄인누니라

鬪歐第七

大抵為與人鬪歐隱有害而每益為人雖以
橫怒奴加我為我須以和悅奴待之為雖有
強暴之人是歐傷我體為攘奪我財羅勿與
較爭古為必告官事也辨正羅人之死生是在
於頃刻尼為不忍片時之忿也下手傷殞為終
致無窮之悔尼為羅法厓歐打則笞二十五致
傷則笞四十五拔髮則笞五十五出血則杖致
八十五折一齒一指眇一目毀耳鼻為以穢
物奴灌口中鼻內則杖一百五折二齒以上
果墮胎刃傷人則杖八十徒後五以至篤疾
則杖一百流三千里五因而致死則絞羅

대녀호디사름과로싸호며티면해후요
미잇고더을이리업누나사루미비록과
대옛노로내거괴더을디나내모로매화
열로디접후며비록강포호사루미내모
몬터상호미이시며내의지므를배여아
온디라도더브러혜아려두토디말오반
드시극의예고후야변정후라사루미주
그며사르미아니한수이예인누니아니
한시에분심을참디몬후야소놀디허상
후야주그면무추매그지엄시누웃브물
닐위누나라법의타면타아시비오상게

호면티수사비오터러글새면티오시비
오피웃나면당팔사비오호니며호가락
것고며호누놀멀오며귀고흔헐오며더
러온거스로입안과고안히녀호면당일
비기오득니로셔나마것근이와아기디
게호며놀호로사루몬샹게호니면당팔
십도녀니오병인도의게호면당일빅뉴
삼천리오인호야죽게호면목졸아주기
느니라

勤業第八

大抵底為窮餓丐乞者是皆是不勤業之人是

耕種乙須早羅為凡霜是可畏羅除草乙須勤

為草茂則害苗尼為雖羅雖片地陳荒羅強勉起

耕羅當春夏之時尼雖似勞苦那為秋成尼收穫

是倍蓰於他家也為凶年是不能害也為人雖飢

餓流離那為我則飽暖安逸也為卒歲每憂尼羅

法厓惰農是不勤服田為陳地乙皆收其稅

為守令是考察論眾尼為羅不特農家為然羅

蚕織工商之人是各勤其事也為毋少怠惰為

衣食是周足尼人無恒業也為游手游食為

我雖不為盜賊是人必以盜賊奴指我也為有

時陷於罪辜尼羅

대녀훈디가난하야주으려비러먹노사
르미다제업을브즈러니아니하노디라
갈며시므물모로매일하라부름과서리
가히저프니라기음미기를모로매브즈
러니하라기으미성하면곡셔글해하노
니라비록조고만사히무글디라도힘셔
닐어갈라봄너름시저레비록고브고슈
고로온듯하나그은히늑거도뷔여드리
미누미지비셔비비하야흥너니능히해
티몬하야사루미비록주려류리하나
노비브르며더우며편안하야그히못도

로개지름이업누니라법에게으른롱뷔
바된일하기롤브즈러니아니하면무근
사홀다그공세를바리고원두고찰하
야죄주누니호갓너름짓는지비그러홀
븐아니라누에치며뵈브여성녕하야흥
정하노사루마각각그이롤브즈러니하
야잠산도게으르디말면오시여바비유
여하노니사루미덜덜호업이업시소놀
놀오며머그면내비록도즈글아닐디라
도사루미반두시도즈그로나를마루쳐
잇다감죄예배될저기인누니라

儲積第九

農家是無遠慮也為秋收之後在恃其穀賤也為
姑息放心也為取飽朝夕為釀酒作餅也為濫用也為
殆盡故奴春夏農務之時在必若飢窘也為未
得力業尼為正一瓶之酒卧數若之餅是可活
一朔羅秋冬在樽節儲積也為深藏不費也為以
備農糧羅為正安東人是今秋在收獲也為明年春
夏所食乙計除堅藏古為正餘穀奴樽節破故
奴農不失業旆為正雜遇凶荒那是正不患飢餓尼為正羅
北道之人隱秋成即時在濫食無節也為不用
升斗也為作餅炊食也為朝飽不計夕飢故奴一

遇不稔為餓殍相望尼為正深患利害也為務為

儲積羅法在濫費會飲是亦有眾焉羅為尼

너름진노지비언혀요미업서又온거둔
후에곡셔기천호주름미더안죽안죽
○물고하도서괴빛又장머그며술비즈
며씩밍又라남즈기버업게호모로봄과
너르메너름힘써치을서저리반두시주
려군금호요매고로어소어블힘써호디
몬호느니호병술과두어그릇셔기가히
호두를살거시라又온과거○레존절호
야只더기피간소호고허바티말라너름

지을양시게예비후라안등사룬마을
온히거두위간슈후야신년봄녀름어글
거솔헤아려더러근디간스후고나문무
셔그로존절후야버그므로녀름지이에
소어블일리아니후면비룩가난호히를
만나주리기를근심아니후노녀라부도
사루모곡석닉거둔즉재너무어거존겨
리업저되마를쁘디아니후이셔클밍글
며바볼지어아춤비브르매나죄죽릴주
를헤아리디아니모로호버니나녀름사
오나오몬만나면주려죽노사루미셔루

부라부니하파니후며해로오몬헤아려
힘써데적후라범에너모허비후며모다
셔솔머코미노죄인누나라

詐偽第十
凡事之須務誠實為不謀詐偽為詐偽之事
隱終難掩覆也必陷於罪辜尼為羅法匪詐偽
官文書者是重則杖一百流三千里五輕則
杖一百徒役五文記偽造則杖一百徒役五
印信偽造則斬五詐稱官差則杖一百徒役
五詐稱時任官子弟奴屬作弊則杖一百五
誣告則反坐其罪尼為羅

물위이로물모로매정성으로힘써후고간
사호거즈이로물쇄후디말라간사호거즈
일로문춤내더프마어려워반두시주예
배디누니라법에간사히구위문셔물밍
근재등호면당일뵈뉴삼천리오경후면
당일뵈도녀디오글워를거죽것밍글면
당일뵈도녀니오이늘거죽것밍글면목
버히고간사히구의치시로라칭명후면
당일뵈도녀니오간사히시임판원니주
데며노쇼기로라칭명후고작폐후면당
일뵈가오거즈이로물고호면그죄물도로

혀남누니라

犯姦第十一

男女情欲是易熾而難防羅所當謹慎者是

莫如姦事尼為小不忍則終陷不測尼為羅法厓

和姦則杖八十五有夫和姦則杖八十五

強姦則絞五半二歲以下幼女通姦則亦絞

羅親屬相姦為切親則死罪五踈親則以次

減等尼為強姦外厓其餘姦事隱男女皆同

罪羅為尼

남진과겨지비욕시마수이성후야마고
미어려온디라맛당이삼갈이리남진계

짐언노일만후니업스니져그나도참디
몬후면무취미곳업슨이레배디누니라
법에화간후면당팔시비오남진인노계
지블화간후면당구시비오강간후면목
줄아주기고열두설아래로져문계지블
통간후면소목줄아주기라권당이서르
어르연결호권당이면주글죄오면권당
이면초초로죄롤더러주누니강간밭괴
그나문남진겨집안노이문남진겨지비
다호가짓죄니라

盜賊第十二

人之為盜賊是皆出於飢寒尼為寧丐乞存

命言勿為偷竊強奪羅為盜賊之人是是卧席終

身馬百每一人羅為行乞得食隱雖似羞愧

為終每慘禍於橫得財物為飽食暖衣加為

可不多時厓囚繫拷掠也為痛楚辛苦為敗家

滅身尼為有何所益古法厓竊盜隱杖六十

五賊多則杖一百絕島為奴五初犯則右臂

刺字古為再犯則左臂刺字也為絕島永屬為奴

古為三犯則絞羅盜官物則加等尼為強盜隱

不分首從皆斬羅

사르미도죽되요미다주리며치우매나

누니출하리비러머거목수물물씩니언
덩절도호며강도호기를말라도죽호노
사루미듯괴누워주그니일비개호사롭
도업스니라도니며비러어더머구문비
룩붓그러온듯호나며추매참담호지화
업스려니와티스기지무를어더비브루
머그며더이납다가아니한시예가티여
셔형문마자장설오며신고호야지비
패호며모미멸앙호누니므스거시더은
주리이쇼료법에마니도죽호니노당
룩시비오장물이만호면당일뵈터절셔

의관로삼고처여의자브면올호풀히주
지호고다시자브니면원풀히주지호야
절셔의영속호판되오세번잡피면목
졸아주기라깃거슬도죽호면죄롤더주
누니라강도노웃드미며조차도니노노
물분과티아너호야다목버힐거시라

殺人第十三

人命至重羅彼我每間尼暴惡之人是或因
貪財為或因讎怨也為暮夜尼無人之中厓潛行
殺害古自以謂得計尼上天是臨下孔昭
古為時鬼神是在傍羅早晚發露也為必蒙殃孽

尼為戕殺無罪之人古為保全平生者是自古
未有羅為尼法謀殺人為首者斬五下午者
紋五因而得財者隱不分首從皆斬五咀咒
殺人者斬五同居人隱雖不知情那為流二千
里五用毒藥殺人者斬五故用毒蟲蛇咬人
致死者斬五朽橋毀船果深水泥湍厓故欺
人令過渡致死者絞羅

사르미명이 지그기 둥호디라녀와나왜
간겨기 업스니 포악호사르미 후지물탐
호요물인호며 후원쉬되여 원망을안호
야어드운밤사름업슨저과마니주기

고제너기되 잘호라호누니하늘히아래
보시물심히볼기호시고귀시니겨터
노디라아모제나나타나반두시앙어롤
넙누니죄업슨사르물주기고평싱온보
전흔재네룩브터잇디아니호니라법에
세호야셔사르물주기매웃듬으로호자
롤목버히고손디호노물목졸아주기고
인호여셔지못를어든노모웃드미며조
차든디논노물분간타아니호야목버히
고노을구러사름주기노노모란목버히
고호터자노사르물비룩정을아디물호

나 뉴이 천 리를 보 내고 독호약을 써서
주긴 노물 목 버히고 부리 독호벌어지며
비여므로 써사루 물물여 죽게 호자 노물
버히고 서근도리며 헌비과기 끈드리며
즈러수의 노된부러사롬 소겨디내며
너여 죽게 호노노물 목 졸아주기라
奴主第十四

奴主 隱有君臣之分 事之盡誠 母或違

逆 羅為法 家長 謀殺則陵遲處死 五歐打

則斬 五 詈罵則絞 五 告 訴則杖一百 徒後 五

家長 矣 族親 乙 歐打 旂為 詈罵 豆為也 其罪至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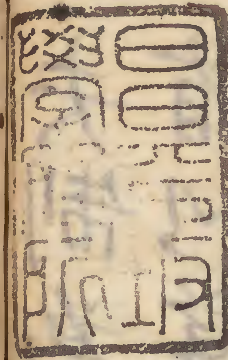
羅為尼

종과 항거스님금과 신하의 부니 잇누니
섬기물정성을 다하야 후어 글츠디 말라
법에 가당을 쇠하야 주기면 능디 하야 주
기고 티면 목 버히고 서지르면 목 졸아 주
기고 할면 당알뵈도 녀니 오가당의 아수
물티며 서지저도 그 죄지그기 둥하니라

重刊警民編終

夫制為刑法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不
有以導之於先執法而論囚不桀於罔民
乎余自叨分陝之
憂按所部察民風每當斷獄未嘗不深喟於
斯蠢愚之民不知人倫之重焉知制法之
詳也雖然有同乎瞽瞍貿貿焉唯衣食之
趨自不覺其觸犯科條流陷於罪辜有司
於是按律繩之如罟羅捕雀機檻取獸鳥
在其使民遷善而遠辜耶余為之惘然舉
其竄關於人道而民之所易犯者為十三
條緇曰警民刊行廣布俾諸蠢氓靡不習

於耳目以冀其去惡從善之第一為編必
推本而舉理者欲民之有所感發而興起
也引法而參證者欲民之有所畏懼而知
避也語簡而辭俚者欲民之有所不學而
易曉也將是編歸之文具付之迂遠坐食
公廩翫愒歲月其於導民化俗之道若不
而致誅焉則殊非編者之意凡我牧
尚念哉正德己卯冬十月觀察使
金正國謹識



此書... 金正國... 正德己卯冬十月...

